

주일에배
SUNDAY WORSHIP

- 1부 : 신앙의 유산을 따라 드리는 전통 예배
- 2부 : 찬양의 향기를 드리는 디아코니아 예배
- 3부 :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풍성한 예배

인도 1부 : 전성민 목사
2부 : 이백석 목사
3부 : 박도준 목사
1부, 7:30 2부, 9:00 3부, 11:00 4부, 젊은이예배 13:0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말씀 요한복음 4:24 인 도 자

개 회 찬 송	찬 양 대		
	1부	2부	3부
※찬 송	86장	경배와 찬양 (모든 상황속에서 외 4곡)	86장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성 시 교 독	43,(시편99편)		43,(시편99편)
기 도	윤창훈 장로	강석주 장로	신현택 장로
말 은 이	다 같 이		
찬 송	292장	292장	다 같 이
봉 헌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성 경 봉 독	야고보서 1:21-27 인 도 자		

찬 양	평안하라 Don Besig	임마누엘 찬양대
	날마다 이호준	여호수아 찬양대
	성도여 다함께 윤창호	시온 찬양대

말 씬	이 사람의 경전		김한호 목사
※찬 송	다시 복음 앞에		다 같 이
※축 도			김한호 목사

※ 표는 일어서시는 표입니다

4부 젊은이예배			
찬 양	청년부 경배와 찬양		
기 도	권미경 권사		
성 경 봉 독	다니엘 1:8-21 임예섭 청년		
말 씬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박도준 목사		

영혼을 깨우는 예배
CHUNCHEON DONGBU WORSHIP

찬양예배	오후 7시		인도 : 박인옥 전도사
목 도	마태복음 28:19-20		다 같 이
찬 송	520장		다 같 이
기 도			박하영 집사
찬 송	430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성 경 봉 독	디모데후서 4:1-8		인 도 자
찬 양			갈렙 찬양대
말 씬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황수영 목사
찬 송	185장		다 같 이
축 도			황수영 목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인도 : 전성민 목사
목 도	마태복음 28:19-20		다 같 이
찬 송	375장		다 같 이
기 도			김순섭 권사
찬 송	545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성 경 봉 독	창세기 21:12-13		인 도 자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 씬	창세기[21] 이삭과 이스마엘		이백석 목사
찬 송	546장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2 금요일의 은혜로운 밤(심야기도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시	대예배실
(7월~8월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

예배 · 모임 · 교인동정
CHUNCHEON DONGBU COMMUNITY

예배·봉사위원	
■ 7월 헌금위원	1 부 : 박영동 김정희 김효순 손영숙 박영임 2 부 : 신동호 김선호 문옥자 박지나 이윤숙 송가운 김택명 김정희(2-5) 3 부 : 진갑용 고광준 권보배 노성숙 문정옥 박정숙 신영희 안영선 이은애 이의숙 장순희 중층 : 홍기종 고은영 김분희 김영진 신원진 이승주 정소연
■ 7월 예배위원	1 부 : 한정호 허남석 이숙안 2 부 : 성기혁 심희성 김현숙 3 부 : 임길석 김영진 김경년 (4층) 김은실 (5층) 홍중성 저녁 : 김순섭 백윤자 김민숙 윤옥선 이윤희
■ 다음주 기도	주일예배 1부 이상근 장로 2부 성기혁 장로 3부 송병두 장로 4부 고은영 집사 찬양예배 : 이영진 집사 수요기도회 : 최은영 권사
■ 주일 식당 봉사	이번주 : 3/7구역 ~ 3/11구역 다음주 : 3/12구역 ~ 4/4구역
■ 주차 안내	- 향존직 및 장차봉사자는 시청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중 주차시 기어를 중립해 놓으시고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 모든 차량은 주차봉사원의 안내와 지시를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모임	
축 구 선 교 회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오후 8시 공치전 B구장
배드민턴선교회	: 매주 월,화,목,금 오후 7시 45분 남춘천중학교
탁 구 선 교 회	: 매주 화,목,금 오후 2시 호산나홀
테 니 스 선 교 회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강원대학교 학생 코트
경배와찬양(2부)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분당
경배와찬양(청년)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분당
청년1부리더훈련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5층 새가족부실
청년2부리더훈련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2층 당회원실
중 보 기 도 모 임	: 매주 주 일 오전 7시 30분, 9시, 11시 중보기도실 (예배)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안나의 방 (나라와 민족)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2층 중보기도실 (선교사역)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2층 중보기도실 (환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2층 중보기도실 (세계평화)

교인동정		
성 명	교구/구역(구역장)	내 용
안영숙	1-13(목회구역)	별세 - 4일(목) 장례 (강희로 은퇴목사)
전정자	1-5(홍정숙)	입원 - 서울나우병원 904호 (장승호 집사)
이운식	3-3(신경자)	입원 - 한림대병원 별관 563호 (신경자 장로)
정부영	5-16(목회구역)	입원 - 강원대병원 51병동 10호 (최선희 집사)
박광호	2-4(조용현)	입원 - 강원대병원 45병동 09호 (박한숙 집사)
양춘아	5-4(염용숙)	입원 - 강원도재활병원 입원병동
전민서	5-9(김정미)	입원 - 강원도재활병원 낮 병동 (주옥순 집사)
박재형	4-6(최문숙)	입원 - 한림대병원 별관 566호 (박태선 목사)
신재경	3-2(전경해)	입원 - 연호요양병원 603호

어부의 눈
FISHERMAN STORY

‘어부의 눈’을 통하여 지난주 설교요약을 전합니다. 묵회자는 고기를 잡는 어부의 심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건져 올리기에 ‘어부의 눈’이란 이름을 정했습니다.

지혜	
본문: 야고보서 1:5-10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 높이가 자그마치 829,84m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원리는 대나무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나무가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높이 자라는 이유는 바로 ‘마디’입니다. 마디가 건물의 외관상 종진 않지만 이로 인해 1km에 가까이 되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견고하게 하는 마디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지혜”라는 마디가 주어질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높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디 역할을 하는 지혜를 생각해 봅시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은 날카로운 질문을 하며, 이에 합리적인 대답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신실함을 지키기위해 노예로 애굽에 팔리게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요셉입니다. 세상은 이를 “미련하다, 바보다”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창45:5을 보니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난이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이런 지혜를 갖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야고보의 별명 “낙타 무릎”입니다. 그가 낙타의 무릎처럼 되도록 열심히 앞뒤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롤모델로 엘리야를 정하였습니다. 약5:17을 보니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후 멀리서 보이는 “작은 구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떠할까요? 이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볼평할 것입니다. 아니, 이를 응답으로 여기지도 않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구름을 통해 큰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이미 내가 답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당시 사회는 신앙이 곧 고통이 되던 사회였습니다. 신앙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부자가 되었다면, 그 삶에서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당시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한 일이지요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반면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랑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지혜를 가지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는 성숙하게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져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춘천동부교회 성도여러분, 우리에게 전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